
 인천광역시		보 도 자 료		 인천의꿈* 대한민국의미래	
		배포일자	2023년 2월 8일(수) 총 7매		
담당 부서	보건의료정책과	담 당 자	• 해외의료팀장	정혜원	☎440-2736
	공보담당관		• 담당자	박은조	☎440-2737
			• 담당자	김미현	☎440-3075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올해 의료관광객 1만3천명 유치 목표

- 엔데믹 전환에 커지는 기대감 ...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로의 재도약 선언 -
- 유치 역량·수용 태세 강화하고 인천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 높인다 -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으로 의료관광시장의 핑크빛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인천시가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로의 재도약을 선언했다.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지난달 말 인천관광공사와 ‘2023년도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치료에서 예방으로 변화하는 의료관광 트렌드를 반영해 의료관광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목적지로서의 경쟁력을 강화를 통해 올해 의료관광객 1만 3,000명을 유치 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미국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는 코로나19로 높아진 ‘건강’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웰니스 관광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다

고 분석했으며,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2020년 4,357억 달러(약 560조 원)에서 2025년 1조 1,276억 달러(약 1,454조 원)로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해 인천시는 8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유치 역량 강화 △의료관광객 맞춤형 수용 태세 강화 △인천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 향상 등 3개 중점 과제와 8개의 관련 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국제기구, 재외공관, 해외지사 및 인천시 자매도시를 중심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교류 확대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정기회의를 개최해 유치 성과 및 개선점, 진행상황 등을 공유함으로써 유치기관의 역량 강화를 꾀한다.

또한 산·학·관 연계 의료관광 전문 교육체계를 마련하고, 의료·웰니스 융복합 코디네이터를 육성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의료관광 환경변화와 수요자 요구에 맞게 지원 서비스도 개선한다.

원스톱 메디컬서비스(이동, 통·번역, 힐리투어 등 비의료서비스)의 운영방식을 의료기관별 개별 이용에서 통합 운영으로 변경해 이용객과 의료기관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재치료를 위해 재방문하는 환자를 위한 사후관리 안심 서비스를 추진해 의료관광 목적지로서 인천의 위상을 높인다.

인천의료관광홍보관은 인천메디컬지원센터로 명칭을 변경하고 의료관광상담, 메디컬 지원 서비스 종합 상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서비스

지원 등으로 기능을 확장한다.

인천의료관광 브랜드 인지도 향상을 위해 외국인 환자 초청 나눔 의료와 의료진 연수 지원도 추진한다.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외국인 환자를 발굴·치료하고, 타깃국가 현지 의료진 초청 교류를 통해 인천의 의료 우수성을 홍보하고 인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강경희 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 관광의 트렌드가 치료 중심에서 예방·건강관리 등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시장의 규모도 빠르게 확장되고 있다”면서 “의료기관·관광·웰니스·비의료사업체와의 융합을 통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고 인천의 다양한 웰니스 관광자원과 연계한 인천만의 고부가 의료관광상품을 개발로 변화하는 국제 의료관광시장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지난달 문체부 웰니스·의료관광 융복합 클러스터 공모사업에 신청서를 제출했고 보건복지부 지역특화 외국인환자 유치기반 강화사업 공모에도 도전한다.

인천은 특화된 의료기술이 있는 우수한 의료기관과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 기반을 바탕으로 바다, 섬 등의 웰니스 관광자원까지 연계한 의료관광시스템으로 외국인을 상대로 한 의료관광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고 있다.

‘21년 인천시 찾은 외국인 환자 전년 동기대비 62.3% 증가 국적별 중국·미국·베트남 순 ... 진료과목은 내과 가장 높아

2021년 인천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8,570명으로 전년 동기(5,279명) 대비 62.3%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 (24.6%)·미국(10%)·베트남(8%)순으로, 진료과목별로는 내과(28.5%)·피부과(10.8%)·검진센터(6.9%)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과와 검진센터를 이용한 외국인은 전년 대비 각각 103%·140%로 크게 증가했다.

인천시는 △주력시장 △진입시장 △성장시장 등 새로운 타깃 국가 개척을 위해 시장조사와 정부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인천만의 특화 의료기술 관련 진료과목을 선정해 타깃 시장을 발굴할 계획이다.

주력시장인 러시아와 CIS국가를 대상으로는 암·심 뇌혈관·관절·척추 등 중증질환 치료에 주력하며, 국내거주 외국인은 진입시장 대상으로 구분해 건강검진·피부관리·성형 등의 건강관리 및 예방프로그램 제공에 주력한다.

또한 성장시장에 속하는 동남아·중국·일본을 대상으로는 피부·성형·한방 등 경증질환과 치유를 중심으로 시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붙임1

관련 사진



붙임2

2021년 방인 외국인 환자 현황

- (국적별) 중국(24.6%) > 미국(10.0%) > 베트남(8.0%) > 러시아(5.1%) > 태국(4.7%) > 카자흐스탄(3.9%)

(단위: 명, %)

구 분	중국		미국		베트남		러시아		태국		카자흐스탄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2019년	6,130	24.7	1,826	7.3	2,407	9.7	2,343	9.4	861	3.5	879	3.5
2020년	1,449	27.4	615	11.6	249	4.7	486	9.2	298	5.6	232	4.4
2021년	2,111	24.6	856	10.0	686	8.0	436	5.1	402	4.7	331	3.9
전년대비 증가율	45.7		39.2		175.5		△10.3		34.9		42.7	
연평균 증가율	15.0		7.2		24.4		16.1		33.1		32.8	

구 분	몽골		필리핀		타지키스탄		일본		그 외 국가		합계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2019년	686	2.8	236	0.9	7	0.0	564	2.3	8,925	35.9	24,864
2020년	245	4.6	93	1.8	6	0.1	72	1.4	1,534	29.1	5,279
2021년	187	2.2	154	1.8	151	1.8	116	1.4	3,140	36.6	8,570
전년대비 증가율	△23.7		65.6		2,416.7		61.1		104.7		62.3
연평균 증가율	6.1		18.1		39.1		5.5		△0.4		5.7

- (진료과목별) 내과(28.5%) > 피부과(10.8%) > 검진(6.9%) > 정형외과(3.9%) > 산부인과(3.8%)

(단위: 명, %)

구 분	내과통합 ²⁾		피부과		검진센터		정형외과		산부인과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2019년	7,945	27.1	1,342	4.6	9,216	31.4	1,131	3.9	1,378	4.7
2020년	1,369	22.3	599	9.8	282	4.6	446	7.3	512	8.3
2021년	2,785	28.5	1,057	10.8	676	6.9	383	3.9	376	3.8
전년대비 증가율	103.4		76.5		139.7		△14.1		△26.6	
연평균 증가율	6.2		14.2		2.8		1.4		△1.5	

구 분	소아청소년과		치과		안과		기타		합계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환자	비중	
2019년	450	1.5	583	2.0	1,166	4.0	6,109	20.8	29,320
2020년	179	2.9	261	4.3	265	4.3	2,224	36.2	6,137
2021년	310	3.2	276	2.8	258	2.6	3,649	37.3	9,770
전년대비 증가율	73.2		5.7		△2.6		64.1		59.2
연평균 증가율	11.9		8.4		2.2		6.7		5.9

붙임3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 현황

□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 93개소

('22. 12월 현재)

구분	합계	신규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기타
의료기관	93	3	11	20	39	6	13	1

□ 외국인 환자 유치업체 : 59개소

('22. 12월 현재)

구분	합계	중구	동구	미추홀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
유치업체	59	10	0	6	14	7	9	4	8	1

붙임4

인천 연도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

□ 연도별 유치실적

(단위: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비고
14,572	17,760	24,864	5,279	8,570	10,000 추정치	'20.1월 코로나19 발생으로 외국인 입국 수 급감

※ 유치기관 유치실적 입력이 다음 해 2월까지이며,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실적 확인
작업 후 최종 실적은 23.6월 이후 확인 가능